

현대중공업, OHSAS 18001 인증 획득

현대중공업(대표 : 최길선)이 최근 세계안전보건 분야의 대표적 인증기관인 DNV(Det Norske Veritas, 노르웨이)로부터 'OHSAS 18001(국제 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을 획득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로써 지난 '92년 조선업분야 'ISO 9001(국제품질경영체제)'과 '97년 'ISO 14001(국제환경경영체제)'를 획득한데다 이번에 'OHSAS 18001'인증 획득으로 고객만족과 수주경쟁력을 높일수 있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2월부터 쏘부서가 인증 획득을 위해 동종업계 최초로 시스템 구축에 착수,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조선업분야에 걸쳐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종합 중공업업체로서의 위상을 다지게 됐다.

또한 선진 안전보건경영체제 도입으로 국내외 고객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됐고 국내외 영업활동

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안전·보건·환경 총괄 홍성조 상무는 “이번 OHSAS 18001 인증은 무재해, 무질병 사업장을 실현시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중공업의 사업 특성상 세계시장의 각종 무역규제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OHSAS 18001'은 제조업체의 안전·보건 관리 체제 구축과 관련한 현장작업 개선과 무재해, 무질병 사업장을 실현시킬 목적으로 지난 '99년 세계 주요인증기관인 DNV, 로이드 등 13개 기관이 공동으로 제정한 심사제도로 안전보건의 유해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행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케이디과워, 친환경지능형 i 수배전반 V4.0 출시

국내 최초의 전력분야 벤처기업인 (주)케이디과워(대표 : 박기주)는 기존의 지능형 수배전반에 환경친화적인 요소와 핵심부품, 기능을 보강한 지능형 수배전반 V4.0을 하반기부터 본격 시판한다.

이 제품은 주위환경에 맞는 색상과 외관구조를 채택하고 수요처별로 이미지에 맞도록 캐릭터를 넣어 첩판 에칭과 도색을 해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체

택했으며 기존의 V3.0 제품보다 콤팩트하게 구성했다. 또 제품의 설계,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에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환경유해성을 최소화하고 분해성과 재활용성 측면에서 환경친화성을 최대한 높였다.

기능면에서도 MCCB 취부개선 및 확대, ACB 인출형 적용, 상부인입인출 기능 등 전체기능을 업

그레이드 했고 주요 구성기기의 신뢰성도 높였다.

케이디파워는 전제품에 디지털, 인터넷, 네트워킹 기술을 채용해 미래형 전기제품과 전력서비스 분야에서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전력분야 벤처기업으로 지난해 6월 Web기반 실시간 전기안전관리서비스를 개시하고 전기재해의 사전예방과 역률·피크제어와 최적운전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최대 2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전력서비스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한편 케이디파워 박기주 사장은 4년전 독자개발해 지난해 11월에 발명특허를 획득한 패키지형 수

배전반이 일반배전반의 시장을 장악하자 저가 유사품이 등장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불법 유사품들은 품질수준이 낮아 패키지형 제품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무너뜨려 선발업체에게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저급부품 사용 등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A/S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 이들 저급제품들은 특허법에 저촉돼 사용자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며 법적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 사용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G산전, 중국 다렌에 공장 준공

LG산전(대표 : 김정만)이 중국 다렌 경제기술개발구에 총 600만 달러를 투자해 전력기기 생산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LG산전은 김정만 사장을 비롯해 리용진 다렌시장, 조하이원 다렌시 개발구 주임 등 120여명의 인사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렌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대지 6,000여평, 연건평 2,000여평 규모의 다렌공장은 배전반, 변압기, 진공차단기, 개폐기 등 전략적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LG산전은 다렌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중국 동북지역과 화북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오는

2006년에 6,0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LG산전은 중국지역의 제2의 내수화를 선언, 최근 베이징에 지사와 기술센터를 설립했고 올해 말까지 상하이에 신규 판매법인 구축을 시작해 2006년까지 1개 지역 본부와, 5개 법인, 3개 지사를 구축, 중국지역에서만 3억2,000여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방침이다.

LG산전은 또한 新비전 선포를 통해 2006년까지 13개 법인과 15개 지사 등 해외거점을 확보해 7억9,0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 목표를 공표한 바 있다.

LG산전, 몰드변압기 미국안전규격인 UL규격 시험 합격

LG산전(대표 : 김정만)은 최근 자사 몰드변압기 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국 안전규격인 UL규격

시험에서 합격했다고 밝혔다.

에폭시 수지(樹脂) 절연재인 권선(卷線·코일, 나사모양으로 여러 번 감은 도선)을 사용하는 몰드변압기는 수요가에 필요한 전압으로 변환시켜주는 변압기로서, 온도상승시 권선의 방재성 및 절연성이 제품 신뢰성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 LG산전 몰드변압기는 스웨덴 ABB社, 미국 스퀘어디(SQUARE-D)社 다음으로 세계에서 3번째로 내열온도 4만시간 기준(유럽은 2만 시간 기준)으로 161도 상태에서의 절연

성 시험을 통과했다.

이번 몰드변압기의 UL시험 합격으로 LG산전은 제품 신뢰성을 검증받아 미주 시장뿐 아니라 UL인증 부착을 요구하는 해외시장 공략이 훨씬 용이하게 됐다.

최근 아랍에미리트 전력청이 발주한 프로젝트에서 몰드변압기 40대를 수주하는 등 중동과 동남아 시장에서 적극적인 해외영업 전략을 펼치고 있는 LG산전은 지난 18일 준공한 중국 다롄(大連) 공장에서도 몰드변압기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남성기업사, 다기능 만능 부스바가공기 국산화

분전반 부스바가공기전문생산업체인 남성기업사(대표 : 이종성)는 최근 3명의 작업자가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다기능 만능 부스바가공기'를 국산화, 수요처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제품은 기계 한 대로 3명의 작업자가 동시에 편칭·절곡·절단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작, 기존 제품보다 작업속도가 10배 이상 빠르고 정확한 규격으로 가공할 수 있다.

특히 편칭작업시 기존 기계보다 작업시야가 넓고 편칭교환이 편리하며, 장공편치를 교환하지 않고 부스바를 앞 뒤 좌우로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또한 절곡작업시 부스바·분전반·케이블(전선압착) 터미널 가공시 자유롭게 금형을 교환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종성 사장은 "자사가 제작한 부스바 가공기제품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의 바이어들로부터 품질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아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남미지역진출을 모색하는 등 해외시장 다각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국내 동종업계 최초로 분전반 부스바가공기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LG전선, PCB용 전해동박 사업 본격화

LG전선(대표 : 권문구)이 PCB(인쇄회로기판)용 전해동박 사업을 본격화 한다.

이 회사는 최근 두께 12 μ m 제품 등의 초극박 개발에 성공, 전해동박사업에 진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LG전선은 특히 이번 개발과 함께 앞으로는 특수박을 비롯한 12 μ m, 18 μ m 등으로 품종을 다각화해 PDA, 노트북컴퓨터의 수요가 많은 대만, 북미 등의 해외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LG전선 동박사업부의 올해 경영실적은 이러한 품질개선 및 생산혁신 노력에 힘입어 사업초기년도였던 전년 매출액대비 38% 증가한 400억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LG전선 전북 정읍공장은 꾸준한 수출향상 및 원가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난해말 70%대였던

수율을 올해 5월말에는 선진기업과 대등한 수준인 85%대로 향상시켰으며, 연말까지 90% 이상으로 올릴 방침이다.

LG전선은 2002년까지 현재 연산 5천톤 규모의 전해동박 생산능력을 세계 5위 수준인 연산 1만 2천톤 이상으로 증설할 계획이다.

한편 전자·정보통신기기용 소재로 사용되는 동박은 35 μ m, 18 μ m 제품이 주종을 차지했으나 노트북, PDA, MP3 플레이어 등의 전자제품 및 통신단말기 등의 지속적인 경박단소화 추세에 따라 18 μ m 보다 얇은 초극박 제품 개발이 국내 동박업체의 과제로 대두되어 왔다.

알토, 용인공장 준공

(주)알토(대표: 허승효)가 밤이면 그림처럼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공장을 준공했다.

22일 알토는 허승효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지철근 한국조명·전기설비확회장, 성종제 한국전등기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세용 태원전기산업(주) 대표 등 업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주북리에 소재한 용인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용인공장은 연면적 1,770평에 사무동과 생산동을 갖추고 있으며 잘 정리된 묘목과 휴식공간이 눈길을 끈다. 또 영동고속도와 인접해 있어 교통입지조건이 유리하다.

용인공장의 가장 큰 특징은 야간을 아름답게 수

놓는 경관조명이다.

생산동의 12개 하얀 폴등은 최근 LG전자가 개발한 무전극램프를 채용, 환상적인 경관을 연출했으며 조경과 휴식공간에는 상암 월드컵경기장등에 사용된 간접조명을 설치해 공원을 연상케 한다.

또 사무동에는 알토가 미국 칼라키네틱스사와 제휴를 통해 국내에 첫 선을 보인 LED전구를 설치, 색깔연출을 자유자재로 표현토록 했다.

이날 허승효 사장은 "향후 용인공장에는 LED조명을 비롯한 첨단조명을 개발할 연구소도 자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알토는 급변하는 시대 조류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해 나가겠다"며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보국, 인도네시아 쿠펙사에 발전기 650만弗 수출

발전기 전문 생산업체인 보국전기(대표 : 광중보)가 인도네시아 쿠펙(쿠웨이트오일·인도네시아 석유공사 합작사)사가 발주한 1천400kW급 상용 가스터빈 발전기 6대를 미화 650만달러(한화 약 83억원)에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액은 중소형 발전기 단일 물량으로는 가장 큰 금액으로 보국전기는 이번 수주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미국의 솔라사와 GE사 등 세계적인 발전기 제작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보국전기가 이번에 공급하는 가스터빈 발전기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3천20km 떨어진 세랍섬 정유공장에 상용 발전용으로 사용되며,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API(미국석유협회)의 까다로운 규격시험을 통과한 최첨단 상용 발전기다. 보국전기는 이번 수주를 통해 중소형 가스터빈 발전기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광기영 보국전기 부사장은 “그동안 비상용 발전기 생산에 주력했으나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가스터빈 상용발전기와 5천kW급 발전기 등 품목을 다양화해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오전기 압착·동관단자 UL인증 획득

전기자재 전문생산 업체인 (주)전오전기(대표 : 오석춘)는 최근 동선 압착단자와 동관단자 2개 품목에 대해 UL인증을 받았다.

전오전기는 지난해 11월부터 UL인증을 준비했으며, 7개월간 약 5천여만원의 자금을 투입 엄격한 안전성 시험을 거쳐 UL인증을 획득했다.

압착단자는 그동안 건축자재중 잡자재로 분류돼 인증이 없는 제품이 주류를 이뤘으나, 국내 최대 압착단자 생산업체인 전오전기가 지난해 KS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최근 UL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압착단자의 품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오전기 관계자는 “이번 UL인증 획득을 계기로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한 후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릴 생각”이라며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소비자 분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오전기는 경기도 김포에 케이블타이 공장, 부천에는 압착단자 공장이 있으며 전국에 8곳의 대리점을 운영중이다.

현재 전오전기는 압착단자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다.

크로스티이씨, 스위치 UPS 플러스 출시

(주)크로스티이씨(대표 : 권용주)는 최근 자사 스위치 UPS의 업그레이드 모델 '스위치 UPS 플러스'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시장공략에 나섰다.

회사측은 서버용 UPS인 '스위치 UPS 플러스'가 PC와 중형 장비, 텔레커뮤니케이션 장비, 혼합 환경 등을 관리하는 다운사이징에 적합하도록 설계돼 여러 유형의 정전 문제를 해결하고 전압저하 시 자동전환회로에 의해 정전압으로 전환되는 등 기존 제품에 비해 성능이 탁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제품은 강력한 써지 억제 회로가 내장돼 있고 DC48VDC로 개발돼 통신용 전원의 배터리에 인버터로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권용주 대표는 "완벽한 A/S를 위해 제품 구입 후 2년 후에도 실비로 배터리를 교체해주는 등 장비용 용에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설치비용도 기존 제품의 1/5수준에 불과해 소비자의 이익에 딱 맞는 서버용 UPS로 각광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두산중공업, 8억弗 담수발전설비 수주

두산중공업(주)이 세계 최대 규모의 UAE 후자이라 담수 및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두산중공업 운영석 사장은 아부다비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UAE 국영회사인 UOG의 모하메드 알마즈로이 사장과 8억달러 상당의 후자이라 담수 및 발전 플랜트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후자이라 담수 프로젝트는 일산 1억 갤런의 세계 최대 규모 담수공장과 660MW급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두산중공업이 민영화 후 첫 번째로 도전한 해외 대규모 입찰건이었다. 1억 갤런은 총 46만톤의 담수량으로 하루 12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두산중공업은 별도의 보증없이 이번 입찰에 참여, 수주에 성공함으로써 민영화 후에도 중동지역에서의 높은 신인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03년 7월 완공 예정인 후자이라 담수 플랜트는 UAE 후자이라市 북쪽에 위치한 키드파 지역에 건설되며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알 아인 지역과 북부 에미리트지역에 담수를 공급하게 된다.

두산중공업은 이 프로젝트의 설계, 제작, 시공, 시운등 전 과정을 일괄도급 방식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미쓰비시重과 기술제휴계약 체결

현대중공업(대표 : 최길선)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원자력발전설비용펌프에 대하여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한국에서 원자력발전소 신설수요를 노린 것으로, 계약기간은 10년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에 원자력발전소설비용기가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에는 현재 12기의 PWR(가압수형경수로)가 건설, 운전되고 있다. 앞으로도 신고리발전소 1~4호기, 신월성 1~2호기 등 PWR에 의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번 기술제휴계약은 PWR메이커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에서 이같은 신설원자력발전설비를 거래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이다.

특히 원자력발전설비에 쓰이는 각종 펌프는 안정적인 운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기. 기기 제작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제휴업체인 현대중공업에서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 기술제휴를 요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에는 기술지도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은 현대중공업이 제조능력과 영업력을 갖춘 굴지의 한국기업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 이번 계약을 체결했다.

미쓰비시중공업에서는 계약에 따라 보조급수펌프 이외에도 원자로보조기냉각수펌프, 사용끝연료 피트펌프, 공조용냉각수펌프, 원자로보조기냉각수급수펌프, 격납용기삼프펌프, 봉산펌프 등을 제공한다. 이 가운데 보조급수펌프는 2차계로에서 사용되는 것을 비롯, 원자로보조기냉각수펌프, 공조용냉각수펌프, 원자로보조기냉각수펌프는 냉각수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또 출력 1백KW급의 발전설비와 총 20개의 펌프가 설치될 전망이다.

미쓰비시중공업에서는 지금까지 중국의 진산발전소용으로 1986년에 보조급수펌프, '98년에 1차냉각재펌프를 납품한 실적이 있다.

이밖에도 '95년에 벨기에에 증기발생기(SG)를 3기, 올 2월에도 SG 3기를 납품한 것을 비롯, '86년과 '99년에는 중국의 진산발전소용 원자로용기를 각 1기 납품하는 등 해외에서 원자력발전설비기기의 납품실적을 쌓아왔다.

LG산전, 소용량 배선용·누전차단기 출시

LG산전(대표 : 김정만)은 30여 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소용량(30~225AF) 배선용 차단기와 누전차단기(제품명 Meta-MEC) 개발을 완료, 이달부

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 제품에 비해 차단용량이 약 90% 향상됐으며, 배전반에 동일한 차단용량의 차



단기를 적용할 경우 기존 제품에 비해 약 30%의 원가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보조커버의 개폐로 부속장치를 쉽게 부착할 수 있게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배선용 차단기와 누전차단기의 외형 크기를 같게해 상호 교체할 수 있게 했으며, 다른 제품과 호환성도 뛰어나다.

이 제품은 국제공인 인증기관인 네덜란드 KEMA에서 IEC(국제전기위원회)인증 시험에 합격 CE마크를 획득했으며, 중국의 GB규격(중국 국가규격) 및 LR규격, KR규격 시험에도 합격했다.

LG산전은 이번 신제품 출시로 소용량에서부터 중용량(400~800AF) 차단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현대중공업 다기능 자동용접시험설비 국산화

현대중공업(대표 : 최길선)은 기존 제품보다 작업속도가 2배 이상 뛰어난 '다기능 자동 용접시험 설비'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설비는 1대의 장비로 CO2용접과 자동용접을 동시에 시험할 수 있는게 특징이다. 또 최적의 용접 변수를 자동으로 설정하고 기억·재생·전송할 수 있는 레이저비전센서(Laser Vision Sensor)를

탑재, 용접기법 개발 및 각종 시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 기기의 개발로 분당 약 1.2m에 머물던 CO2용접 작업속도를 약 2.4m까지 2배 가량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자동용접도 분당 1m에서 2.5m로 2.5배가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비츠로테크, 중전기기 GD마크 획득

중전기기 중견업체인 (주)비츠로테크(대표 : 정영수)가 중전기기로는 유일하게 GD마크를 획득했다. 이는 특히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은 GD마크를 신청한 685점 가운데 320점을 선정 발표했다. 이중 중전기기로는 유일하게 (주)비츠로테크의 VCB(진공차단기)가 선정됐다.

(주)비츠로테크는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산업기기의 인식 전환을 위해 제품의 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과감히 디자인적인 요소를 적용,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VCB도 제품의 특성을 고려, 사용자들에게 신뢰감은 물론 정밀하고 견고한 이미지 부각을 위해 전면 카바는 심플하면서도 정리된 이미지를 살리는 한편 조작순서에 따른 편리한 버튼 배열 등 실용성을 감안한 환경조화형 제품으

로 완성했다.

(주)비츠로테크는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의 디자인이 중요한 점을 일찍이 인식,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99년에는 ACB의 디자인 개발로 호평을 받은바 있으며 지난해 VCB 디자인 개발에 이어 VCS, VTS 등의 제품에도 지속적인 디자인 개발에 적극 힘써오고 있다.

특히 비츠로 ACB는 우수한 차단능력과 신뢰성이

뛰어난 제품으로 소형 경량화를 이뤄 배전반의 COMPACT화 및 보수점검이 간편하며 인출입이 용이하고 염해 및 오손지역 등 대환경성까지 고려하는 한편 조작라인의 전면판 표시로 운전조작이 쉬어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주)비츠로테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디자인 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해나갈 계획이다.

